

국회 행안위 ‘제주도의회 정수 45명 유지’ 법안 논의 “지역 형평성·도민 여론 고려”

제주도의회만 있는 ‘교육의원(5명) 제도’ 을 6월 일몰 정춘생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 개정안 발의 지방선거 앞둔 제주정가 도의원 정수 조정 여부 촉각

오는 6월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의 비례대표 전환의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심의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지역구의원 32명, 비례대표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기초의회(시·군의회)가 폐지되자, 다른 시·도와 구조가 달라진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의회의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는 6월 30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2010년 2월 교육자치법 개정 부칙을 통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일몰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폐지됐고, 제주도의회의 경우 2026년 6월 30일이 효력 기한이어서 오는 6월 3일 진행될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정춘생 의원은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 정수를 그대로 유지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교육의원이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되면 제주도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도의원 정수가 45명에서 40명으로 축소돼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 지방자치와 도민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여부는 제주도 총인구, 인구편차 상·하한 기준,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선거구 변동사항, 타 시·도와의 형평성,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타 시·도의원 정수 조정 사례, 지역사회 구성의 다양성 정도 및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공약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규정되어 있어 제주도의회에 한해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의회 구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 유지 방안으로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외에도 지역구 의석 확대 등 다른 대안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부미현기자



만감류가 본격 출하기를 맞은 가운데, 중문농협 유통센터에서 레드향 선별 작업이 한창이다.

강희만기자

“고품질로 승부”... 만감류 출하 본격 설 앞두고 최근 값 회복세... 농협, 시장안정·소비확대 총력

제주 만감류가 본격 출하기를 맞은 가운데, 소비 둔화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약세를 보이던 평균가격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수입 만다린 변수와 소비 둔화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어, 출하 초기 수급 관리와 품질 경쟁력이 향후 가격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농협 제주분부는 완속과 중심의 고품질 출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우고, 출하 초기 시장 안정과 소비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별로 당·산도, 중량, 크기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품질이 확보된 물량만 시장으로 출하되도록 관리하며 산지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중문농협 유통센터에서 2025

년산 만감류 본격적인 출하기에 맞춰 생산·유통동향과 품질관리·소비 확대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농협 제주본부의 현장 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최근 9대 도매시장 일일 평균가격동향은 3kg 기준 한라봉은 지난 1월 24일 1만600원에서 2월 4일 기준 1만3900원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천혜향은 1만3200원에서 1만6400원, 레드향은 1만5700원에서 1만8600원으로 각각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 한파 등 영향으로 과일 수요가 감소하고 설 명절 시점이 전년보다 늦어 수요가 분산되면서 전년 대비 평균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일부 과일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오르고, 레드향 등을 중심으로 맛이 올라오면서

일부 수요가 만감류로 이동해 가격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문농협 김성범 조합장은 “선별장에서는 외관·중량뿐 아니라 출하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품질이 충분히 올라온 만감류 중심으로 출하가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도 완속과 출하에 함께 힘을 모은다면 시장에서도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제주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연계한 1만t 규모의 매처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설 이후 수요 공백 최소화를 위한 할인행사와 소비 촉진도 이어가며, 시식행사·급식 납품 연계 등 판로 다각화 등을 통해 가격 지지에 나설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도, 소상공·중기 자금난 해소 420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기 자금 저금리 융자 등 올해 420억원을 투입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중기 자금 융자 지원 제도는 38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시설 투자 자금과 경영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차 차액은 제주도가 보전한다.

경영 안정 자금은 1회 2년 지원이 원칙이나 매출액·소득액이 하락한 경영 위기 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추가로 2년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경영 안정 자금 이차 보전 우대 지원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 동행 일자리 우수 기업이

추가됐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도비 24억원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투입해 880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특별 보증 300억원, 창업 기업 대상 특별 보증 330억원, 폐업 사업자 대출 전환을 위한 브릿지 보증 30억원 등이다. 특별 보증은 우대금리 적용, 보증 심사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전선희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제주~청다오 투자심사 패스 논란 법제처로... 5면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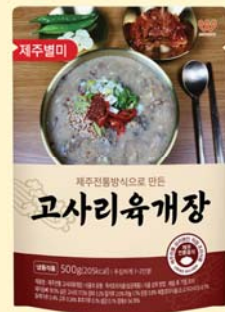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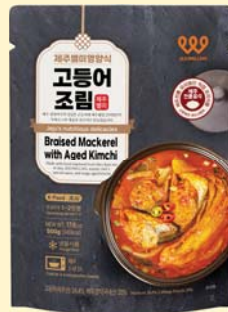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